

# 노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 및 외모만족도에 따른 의복만족도와 의복디자인 선호도에 대한 연구 -서울시내 거주 노년기 여성을 중심으로-

김진구 · 서미아 · 이유경 · 이선희\*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광주여자전문대학 의상디자인과\*

## The Life Satisfaction, Appearance Satisfaction, Clothing Satisfaction, and Clothing Design Preference of Women Aged 55years and Older in Seoul

Jin Goo Kim, Mi-A Suh, Yu Kyung Lee, Sun-Hee Le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Hanyang University

Dept. of Clothing Design, Kwangju Women's Junior College\*

### 目 次

Abstract	2. 생활만족도와 의복디자인 선호도와의 관계
I. 서론	3. 외모만족도와 의복만족도와의 관계
II. 노년기 여성 의복에 대한 선행연구	4. 외모만족도와 의복디자인 선호도와의 관계
III. 연구방법 및 절차	V. 요약 및 결론
IV. 결과 및 논의	인용문헌
1. 생활만족도와 의복만족도와의 관계	

### Abstract

The elderly population of Korea has been significantly increasing due to advances in public health, medical care, and quality of life. Social and economic influence of the elderly population has been also increasing. As elderly people become more interested in their appearance and clothing than before, clothing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old-

erly women's everyday life.

The objectives of the research are to explore the life satisfaction, appearance satisfaction, clothing satisfaction, and clothing design preference of 416 women aged 55 years and older who were residents of Seoul. Data were gathered through survey using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from November, 1994 to January, 1995 in 8 senior schools and 3 senior centers which were scattered in Seoul.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factor analysis were used in analysing the data.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life satisfaction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clothing satisfaction. The respond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by life satisfaction. The higher life satisfaction group preferred skirts and formal wear to the lower. But, two groups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erms of the color preference, motif preference, and fabric preference.

The result of factor analysis divided appearance satisfaction into body satisfaction and face satisfaction. Body satisfaction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clothing satisfaction. And the group of lower physical satisfaction showed lower satisfaction in apparel fitness. Also the face satisfaction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clothing satisfaction.

The group of higher physical satisfaction preferred skirts and formal wear compared to that of lower physical satisfaction. The color preference and motif preference between two group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And the group of higher physical satisfaction preferred fabric that enhances the clothing style.

Also, the group of higher face satisfaction preferred fabric that enhances the clothing style.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olor preference and motif preference between two groups.

The findings of this study may contribute to knowledge about clothing satisfaction and preference of elderly women in Seoul since there have been few studies, and be useful to apparel manufacturers as well as clothing researchers. Also, research subjects of this study could be extended to aged men and various regions.

## I. 서 론

196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 나라의 급속한 경제발전은 다방면의 사회변동을 야기시켰다. 인구학적으로는 인구의 노령화 현상을 초래하였고, 그 결과 노인의 지위, 가치관, 태도, 역할, 구매행동, 사회·경제적 영향력, 삶의 질 등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또한 노인인구의 의복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노년기는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 및 가정에서의 역할 변화, 심리적·신체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므로 노인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의복 문제를 지닌다.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노인은 그들의 외보와 의복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나타

내고 중요성을 부여할 뿐 아니라, 의복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의복에 의존하는 것을 볼 수 있다(Hogge & Baer, 1986). 또한 노인들은 사회적 관계의 축소로 인한 소외감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 필요한 도구로서 의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임치경, 1984). 또한 노년기의 외형적인 신체변화와 건강면에서의 신체노화가 노인 의복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Baum & Boxley, 1983).

우리나라에서 노인의복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1980년 이후부터 시작되었다(박제옥, 1984). 그러나, 서울거주 다양한 계층의 노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노인의복 연구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있으며, 현재의 대부분의 의복은 젊은층의 체형과 기호에 의거하여 제작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성복을 구입한 적이 있는 반 이상의 노년기 여성이 불만족을 나타냈으며, 수선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노인들의 특수한 입장에 따라 심미적 특성뿐 아니라 기능성과 적합성도 함께 갖춘 의복 및 노인들이 만족하고 선호하는 의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생활만족도 및 외모만족도와 의복디자인 선호도 및 의복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도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내 거주 55세 이상의 노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 ① 생활만족도와 의복만족도 간의 관계
- ② 생활만족도와 의복디자인 선호도 간의 관계
- ③ 외모만족도와 의복만족도 간의 관계
- ④ 외모만족도와 의복디자인 선호도 간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노년기 여성의 의복 요구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것이 생활만족도와 외모만족도에 따라 달라지는가를 고찰함으로써,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만족스럽고 긍정적인 의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 II. 노년기 여성 의복에 대한 선행연구

### 1. 생활만족도와 의복

생의 만족이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판단함에 있어, 가치있고 성공적인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심리적 안정감이나 주관적 복지상태를 나타내 주는 일종의 감정상태이다. 이에 노인의 생활만족도란 전생애를 통해 자신의 기대하던 인생과 현재 자신이 살아가는 생활과의 합일 정도로 정의내릴 수 있다(김수연, 1987). 생활만족도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김순구, 1993).

- ① 현재생활을 구성하고 있는 활동으로부터 얻는 즐거움
- ② 본인의 인생을 의미있는 것으로 여기고 지금까지의 생활에 대한 절대적 수용
- ③ 바라던 목적과 성취한 목적간의 일치를 이루므로서 인생의 주요목적 달성하였다는 감정
- ④ 긍정적인 자아상
- ⑤ 행복 및 낙관적인 태도와 기분에 대한 유지

일반적으로, 생활만족도의 결정요인은 수입, 교육, 결혼상태, 사회적 활동 등이라고 일컬어진다. 특히 노인층에 있어서는 건강상태, 경제적 수준, 가족형태, 사회적 활동이 주요 인자로 밝혀지고 있고, 또한 가정내의 역동적 관계에도 영향을 받는다(김순구, 1993; 박충선, 1991).

그 외에 가정내 위치, 여가선용 상태 등도 경제상황도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목된다(김영애, 1991). 그러나,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각 변인의 중요도는 개인과 사회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생활만족도는 노인기의 의복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심리적 변인이다. 부산거주 성인, 노인 남녀의 경우 생활만족도는 전반적인 의복행동에 강한 영향을 미쳤으며(김순구, 1993), 서울시내 노인학교를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노년여성의 생활만족도는 의복만족도와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박미애, 1987). 생활만족도는 의복관심과도 정적인 관계가 있어 생활에 만족할수록 의복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그러나 서울집단의 경우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와 의복관심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광주집단은 의복변인과 유의있는 관계가 없었다. 또한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신체적 자아가 높아지고 의복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을 볼 수 있다(유경숙, 1984). 노인들에게 있어서 생활만족도와 의복의 맞춤새에 대한 만족과도 비례한다.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의 하나인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기성복에 대해 만족한다(김영애, 1991)는 결과도 관심을 끈다.

## 2. 외모만족도와 의복

외모만족도란 자신의 신체 각 부분의 모습이나 전체적 모습, 신체 움직임 등에 대한 만족도를 말한다. 외모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수입, 사회 참여도, 지위, 교육수준을 들 수 있으며, 이것은 외모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낸다(Hwang, 1993). 또한 교육 정도와 계층이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정희용, 임숙자, 1988). 노인에게 있어서 외모만족도는 의복행동 및 자아개념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Hwang, 1993). 강혜원 등도 노인들에게 있어 신체만족도는 성별에 관계없이 의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인이라고 밝히고 있다(강혜원, 이선경, 1990). 노년기 여성들도 신체적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의복에서도 만족한다(김순구, 1993). LaBat과 DeLong(1990), LaBat(1988)은 외모만족도와 기성복의 맞춤새에 대한 만족도 사이에는 강한 정적 관계가 있다고 했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에 있어서 신체만족도는 자아개념 및 의복행동과 더욱 밀접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Hwang, 1993).

또한 신체적 자아는 서울집단의 경우 전반적인 의복관심과, 광주집단은 의복의 만족도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유경숙, 1984). 노인 여성의 외모 만족도는 의복 행동(의복 태도, 기성복 만족도, 쇼핑 만족도, 쇼핑 동반자, 의복비 지출) 과도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보고되었다(Hwang, 1993). 노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신체만족도가 높고 의복에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을수록, 기성복, 제품의 다양성, 점포의 수준에 만족했고 쇼핑을 즐겼으며 자신있게 적절한 의복을 선택했고 의복을 많이 구입한다는 결론을 얻었다(Shim 외 2인, 1991).

## 3. 의복만족도

의복만족도는 의복의 스타일, 색상, 질감, 문양, 바느질, 관리, 가격, 활동성, 상황에의 적합성, 유행성, 맞춤새, 유행, 개성 및 착용방식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Mclean, 1978; Shannon, 1961). 조은주(1988)는 60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3%가 기성복 구매 후 불만을 나타냈으며, 의복구입시 불만족 요인은 사이즈,

색, 무늬, 디자인 순이었다. 김영애(1991)의 노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대체로 기성복에 만족하고 있지 않았으며, 불만족요인을 살펴보면 가격, 색상, 모양, 맞춤새, 질감의 순으로 나타났다. 許甲暹(1993)에 의하면, 노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의복착용의 문제에 있어서 젊은이 지향이어서 불편하다고 했으며, 고령자 기성복점을 원했다. 기성복의 문제점에 있어서는 사이즈, 가격, 색상, 소재의 순이었다. Tate(1961)에 의하면 50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 결과, 의복구매시에 가장 고려하는 점은 안락감과 맞춤새이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노인들의 의생활에 있어서 불만족한 요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으나 신체적 변화와 더불어 사이즈, 맞춤새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됨을 알 수 있다. Blair(Ryan,1966)는 45세부터 65세까지의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대부분의 여성들이 체중의 증가 및 허리가 굽어짐에 의하여 의복이 몸에 잘 맞지 않게 되는 부위가 허리, 윗팔, 가슴, 어깨 등의 순서라고 보고하고 있다. 김영애(1991)는 신체중실지수가 높은 노인일수록 전반적인 맞춤새, 가슴부위, 허리선의 위치, 엉덩이 부위, 스커트 혹은 바지길이가 몸에 맞는 정도에 불만이 있었다고 하였다. Shim 등(1993)은 55세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카탈로그구매에 의한 의복의 맞춤새 연구에서 전체적인 만족 수준은 낮았으며, 특히 블라우스/스웨터길이, 바지길이, 스커트/드레스 길이, 자켓길이와 관련하여 낮았다고 하였다.

#### 4. 의복디자인 선호도

의복디자인은 시각예술의 한 분야로서, 그 의복이 인간에게 입혀졌을 때 그 입혀진 인간을 보다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조화시키고, 그 인간이 속해 있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의복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유송옥, 1975). 조은주(1987)는 한국 노년기 여성의 외출시 양장, 한복의 선호에 대해 양장의 착용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였으며, 그는 양장을 즐겨 입는 이유로 간편하고 활동하기 용이한 점을 들고 투피스를 외출복으로 애용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박준경(1986)은 우리나라 노년층의 의복색과 기호색을 조사, 분석한 결과 기호색은 Bluepurple, Blue, Yellow의 순이었으며, 연령별로 50대는 Blue, 60대는 Bluepurple, 70대 Green이다. 조은주(1988)는 60대이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선호의복색은 붉은색 계통, 갈색계통, 푸른색계통의 순으로 보고했다. 이미강, 이인자(1985)의 색채와 문양에 대한 연구에서 20대는 줄무늬와 무늬없는 직물, 30대는 점무늬와 전통무늬, 40대는 점무늬와 꽃무늬를 선호한다고 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성인여성은 무늬없는 직물을 높게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조은주(1988)는 60대이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의복무늬 선호에 대해서는 무늬가 없는 단색이나 꽃무늬를 좋아하며, 의복소재에 대해서는 부드러운 질감의 옷감을 좋아하였다.

### Ⅲ.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설문지법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55세 이상의 노년기 여성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1, 2차 예비조사를 거쳐서, 1994년 11월부터 1995년 1월까지 본 조사를

를 실시하였으며, 2차례의 예비조사를 토대로 수정·보완한 설문지를 본조사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응답능력에 따라 인터뷰 및 자기응답식 질문지법을 병행하여 조사하였다.

자료수집은 서울 시내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8곳의 노인대학(노원구의 평화노인대학과 북부장수대학; 송파구의 정각여성대학; 강남구의 압구정 여류노인대학; 종로구의 세검정 노인대학; 용산구의 이촌노인대학; 성북구의 정릉노인대학; 동작구의 동작시범노인대학)과 3곳의 노인정(서초구, 서대문구, 관악구)을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다양한 연령 및 계층을 포함시키고자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학생의 친·인척의 노년기 여성을 대상으로도 자료를 수집하였다. 질문지 총 600부를 배부하여 514부가 회수되었으며 불완전한 자료를 제외한 418부를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 2. 조사도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연구를 근거로 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 1) 생활만족도 및 외모만족도

생활만족도에 대한 문항은 윤진(1982)이 개발한 척도와 김순구(1993)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8문항을 선정하였다. 의복만족도에 관한 문항은 Secourd와 Jourard(1953), 구자명(1993), 김비영(1983)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7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들 생활 및 외모만족도는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 2) 의복만족도 및 의복디자인 선호도

의복만족도는 시중에 나와있는 의복디자인 및 관련요인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고, 의복적합도는 기성복(블라우스/스웨터, 자켓, 바지, 스커트)을 구입할 때 신체에 잘 맞지 않은 부위에 대해 모두 답하도록 하였다. 의복디자인 선호도는 외출할 때 즐거워하는 의복의 종류, 계절별로 좋아하는 의복의 색, 좋아하는 문양, 좋아하는 옷감을 묻는 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해 선호하는 디자인에 2개씩 답하도록 하였다.

### 3) 분석방법

SPSS/PC를 사용하여 생활 및 외모 만족도, 의복만족에 관한 문항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요인분석하였고, 의복선호도와 의복만족도는 빈도와 퍼센트를 사용하였으며, 변수들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t-test를 하였다.

## IV. 결과 및 논의

### 1. 생활만족도와 의복만족도와의 관계

#### 1) 생활만족도 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생활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9문항을 주성분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하였다. 이때 varimax 회전하여 공동분산치가 0.4미만의 문항은 제외시키고 최종적으로 5문항을 다시 요

인분석한 결과 1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전체분산의 60.4%로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다. 분항 내용과 함께 <표 1>로 제시하였다.

<표 1> 생활만족도 분항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 및 분항내용	요인부하량	고유치	누적분산	평균
		3.0218	60.4	3.78
- 전반적인 일상생활에 대해 만족한다.	.6557			
- 현재 나의 일(가사·직장일)에 대해 만족한다.	.6581			
- 나의 가정생활(부모·형제·남편·사녀문제 등)에 만족한다.	.6088			
- 나는 근심 걱정이 없다.	.5724			
- 나의 생활 정도(주택·자동차·가구·여가활동 등)에 만족한다.	.5268			

## 2) 의복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도의 요인분석

시판의류제품에 대한 노년기 여성의 의복만족도는 시판의복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도와 치수적합에 대한 만족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적합도를 제외한 의복의 일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는 15분항을 특성별로 분류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추출된 세 요인은 전체분산의 60.2%라는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요인 1은 사회성 및 외모적합성에 대한 만족도, 요인 2는 디자인의 다양성에 대한 만족도, 요인 3은 실용성 및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로 명명하였고 <표 2>에 제시하였다.

## 3) 생활만족도와 의복만족도의 관계

생활만족도를 평균점인 18.89를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나눈 후, 의복만족도와 의 관계를 살펴본다.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생활만족도와 의복만족도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데, 의복만족도의 세 요인인 사회성 및 외모 적합성에 대한 만족도, 디자인의 다양성에 대한 만족도, 실용성 및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 모두에서 생활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생활만족도가 낮은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는 의복만족도와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박미애(198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생활만족도와 의복디자인 선호도와의 관계

노년기 여성들의 생활만족도에 따른 의복디자인 선호도를 중요 순서대로 나타내면, <표 4>와 같다. 먼저 생활만족도에 따른 선호의복 스타일을 살펴보면, 생활만족도가 낮은 집단의 경우 블라우스(스웨터)와 바지 23.5%, 두피스정장 22.6%, 블라우스(스웨터)와 스커트 14.3%의 순이며, 높은 집단의 경우 두피스정장 27.3%, 블라우스(스웨터)와 바지 19.8%, 블라우스(스웨터)와 스커트 15.3%의 순으로 생활만족도가 낮은 집단에서 블라우스(스웨터)와 바

<표 2> 의복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도(적합도 제외)의 요인분석

요인 및 분항내용	요인부하량	고유치	누적분산	평균
<b>요인 1: 사회성 및 외모 적합성에 대한 만족도</b>		6.2100	41.4	3.06
-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찾기가 쉽다.	.8132			
- 용도 및 상황에 적합한 의복을 찾기가 쉽다.	.7457			
- 내가 갖고 있는 옷과 조화되는 옷을 쉽게 고 를 수 있다.	.7440			
- 나에게 맞춤새가 좋은 의복이 많다.	.6602			
- 활동하기에 편한 의복을 고르기가 쉽다.	.6382			
- 품위있게 보이는 의복이 많다.	.5217			
<b>요인 2: 디자인의 다양성에 대한 만족도</b>		1.6757	52.6	3.33
- 옷의 색채가 다양하다.	.8291			
- 여러가지 다양한 문양의 의복이 많다.	.7821			
- 마음에 드는 다양한 재질의 의복이 많다.	.7119			
- 여러가지 다양한 디자인의 의복이 많다.	.6708			
- 유행성이 반영되는 의복이 많다.	.6201			
<b>요인 3: 실용성 및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b>		1.1514	60.2	3.42
- 옷의 세탁 및 관리가 편리한 의복이 많다.	.7729			
- 적당한 가격의 의복이 많다.	.7490			
- 입고 벗기에 편리한 의복이 많다.	.6299			
- 바느질이 매우 꼼꼼하고 잘 되어 있다.	.5968			

<표 3> 생활만족도와 의복만족도의 관계

		생활만족도		
		낮은 집단	높은 집단	t
의복	사회성 및 외모 적합성에 대한 만족도	17.39	18.74	-2.32*
만족도	디자인의 다양성에 대한 만족도	15.85	17.51	-3.44**
	실용성 및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	12.65	14.18	-4.69***

\* p<0.05, \*\* p<0.01, \*\*\* p<0.001 수준에서 유의함.

지를 더욱 애용하였으며, 두 집단 모두에서도 스커트보다 바지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만족도가 높은 집단에서 정장스타일을 더 선호하였다.

생활만족도에 따른 선호 의복색을 살펴보면, 봄의 선호 의복색의 경우 생활만족도가 낮은 집단이 분홍색 11.6%, 미색 9.8%, 노랑색 9.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생활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분홍색 13.3%, 미색 7.7%, 베이지색 7.2%의 순으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여름의 경우 생활만족도가 낮은 집단은 흰색 10.1%, 하늘색 9.1%, 파랑색 7.6%의 순이며, 생활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흰색 24.1%, 미색 7.4%, 파랑색 6.5%의 순으로 나타나, 2순위에서 생활만



<표 4> 생활만족도와 의복디자인 선호도와와의 관계

		생활만족도	
		낮은 집단 (328*)	높은 집단 (444*)
선호하는 의복의 종류	① 블라우스(스웨터)와 바지	77(23.5)	① 투피스정장 121(27.3)
	② 투피스 정장	74(22.6)	② 블라우스(스웨터)와 바지 88(19.8)
	③ 블라우스(스웨터)와 스커트	47(14.3)	③ 블라우스(스웨터)와 스커트 68(15.3)
선호하는 의복색	① 분홍색	38(11.6)	① 분홍색 59(13.3)
	② 미 색	32( 9.8)	② 미 색 34( 7.7)
	③ 노랑색	30( 9.1)	③ 베이지색 32( 7.2)
여름	① 흰 색	93(10.1)	① 흰 색 107(24.1)
	② 하늘색	30( 9.1)	② 미 색 33( 7.4)
	③ 파랑색	25( 7.6)	③ 파랑색 29( 6.5)
가을	① 밤 색	61(18.6)	① 밤 색 77(17.3)
	② 자주색	28( 8.5)	② 자주색 40( 9.0)
	③ 베이지색	27( 8.2)	③ 베이지색 38( 8.6)
겨울	① 검정색	110(33.5)	① 검정색 134(30.2)
	② 밤 색	39(11.9)	② 밤 색 45(10.1)
	③ 회 색	33(10.1)	③ 회 색 35( 7.9)
선호하는 문양	① 문양없는 단색의 옷	111(33.8)	① 문양없는 단색의 옷 151(34.0)
	② 기하학적 문양(줄무늬, 체크무늬 등)	71(21.6)	② 기하학적 문양(줄무늬, 체크무늬 등) 111(25.0)
	③ 전통문양	33(10.1)	③ 점문양 37( 8.3)
선호하는 옷감	① 세탁이 간편한 옷감	86(26.2)	① 세탁이 간편한 옷감 118(26.6)
	② 옷의 땀시가 잘 나는 옷감	47(14.3)	② 옷의 땀시가 잘 나는 옷감 60(13.5)
	③ 착용시 구김이 잘 가지 않는 옷감	45(13.7)	③ 착용시 구김이 잘 가지 않는 옷감 57(12.8)
	④ 옷의 형태가 잘 변하지 않는 옷감	45(13.7)	

\* 복수응답의 집계임.

족도가 낮은 집단이 하늘색을 선호하며, 높은 집단이 비색을 선호함을 보였다. 가을의 경우, 생활만족도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모두 밤색, 자주색, 베이지색의 순이며, 선호비율에서만 차이를 보였다. 겨울의 경우도 두 집단 모두 검정색, 밤색, 회색의 순이며, 선호비율에서만 차이를 보였다.

생활만족도에 따른 선호하는 문양을 살펴보면, 생활만족도가 낮은 집단의 경우 문양없는 단색의 옷 33.8%, 기하학적 문양(줄무늬, 체크무늬 등) 21.6%, 전통문양 10.1%의 순이며, 생활만족도가 높은 집단의 경우 문양없는 단색의 옷 34.0%, 기하학적 문양(줄무늬, 체크무늬

등) 25.0%, 점 문양 8.3%의 순으로 3순위에서만 전통문양과 점 문양으로 차이를 보였다. 선호하는 옷감의 경우, 두 집단 모두 세탁이 간편한 옷감, 옷의 땀시가 잘 나는 옷감, 착용시 구김이 잘 가지 않는 옷감의 순으로 나타나, 노년기의 여성들은 생활만족도에 상관없이 실용성 및 편리성을 중요시 함을 알 수 있었다.

### 3. 외모만족도와 의복만족도와의 관계

#### 1) 외모만족도 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외모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7개의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추출된 2개 요인은 전체분산의 67.47%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표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요인 1은 신체만족도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요인 2는 얼굴 및 인상만족도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신체만족도와 의복만족도와의 관계

외모만족도 중 제1요인인 신체만족도를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나누어 의복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신체만족도와 의복만족도는 유의한 관계를 보여, 의복만족도의 세 요인인 사회성 및 외모적합성에 대한 만족도, 디자인의 다양성에 대한 만족도, 실용성 및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 모두에서 신체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신체만족도가 낮은 집단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들에게 있어 신체만족도는 의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인이라고 한 연구(강혜원, 이선경, 1990; 김순구, 1993)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다.

#### 3) 신체만족도와 시판기성복의 치수적합에 대한 만족도

신체만족도에 따른 시판 기성복의 치수적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잘 맞지 않는 부위에 대하여 의복별로 나타내었다(표 7). 의복별로 살펴보면, 잘 맞지 않는 부위에 대하여 블라우스/스웨터에서는 두 집단 모두 소매길이, 어깨부위, 블라우스의 길이 순이며, 신체만족도

<표 5> 외모만족도 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 및 문항내용	요인부하량	고유치	누적분산	평균
<b>1. 신체만족도</b>		3.6789	52.6	3.091
- 나의 복부(허리·배·엉덩이)모습에 만족한다.	.9000			
- 나의 팔·다리 모습에 만족한다.	.8134			
- 나의 전체모습(체격·자세 등)에 만족한다.	.8111			
- 나의 피부에 만족한다.	.5107			
<b>2. 얼굴 및 인상만족도</b>		1.0398	67.4	3.486
- 나는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다.	.8404			
- 나의 외모는 남에게 좋은 인상을 준다.	.7850			
- 나의 얼굴모습에 만족한다.	.6008			

<표 6> 신체만족도와 의복만족도와의 관계

		신체만족도		
		낮은 집단	높은 집단	t
의복	사회성 및 외모적합성에 대한 만족도	17.42	19.24	-3.19**
만족도	디자인의 다양성에 대한 만족도	16.07	17.62	-3.24***
	실용성 및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	12.98	14.34	-4.22***

\* p<0.05, \*\* p<0.01, \*\*\* p<0.001 수준에서 유의함.

<표 7> 신체만족도와 시판가성복의 치수적합에 대한 만족도

	신 체 만 족 도			
	낮은 집단 (225)		높은 집단 (180)	
	순서	인원(%)	순서	인원(%)
블라우스/스웨터	① 소매길이	115(51.1)	① 소매길이	68(37.8)
	② 어깨부위	67(29.8)	② 어깨부위	48(26.7)
	③ 블라우스길이	42(18.7)	③ 블라우스길이	31(17.2)
자 켓	① 소매길이	86(38.2)	① 소매길이	53(29.4)
	② 어깨부위	71(31.6)	② 어깨부위	45(25.0)
	③ 자켓길이	47(21.8)	③ 자켓길이	27(15.0)
바 지	① 바지길이	84(37.3)	① 바지길이	60(33.3)
	② 허리둘레	82(36.4)	② 허리둘레	59(32.8)
	③ 엉덩이둘레	51(22.7)	③ 엉덩이둘레	36(20.0)
스커트	① 스커트길이	64(28.4)	① 스커트길이	47(26.1)
	② 허리둘레	61(27.1)	② 허리둘레	41(22.8)
	③ 아랫배부위	49(21.8)	③ 아랫배부위	26(14.4)

가 낮은 집단이 신체만족도가 높은 집단에 비해 더욱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켓에서도 신체만족도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모두 소매길이, 어깨부위, 자켓길이의 순으로 신체만족도가 낮은 집단이 신체만족도가 높은 집단에 비해 더욱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만족하는 부위는 블라우스/스웨터와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바지에서 잘 맞지 않는 부위로는 두 집단 모두 바지길이, 허리둘레, 엉덩이둘레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스커트에서는 스커트길이, 허리둘레, 아랫배부위의 순으로 두 집단의 불만족 순위는 동일하나, 신체만족도가 낮은 집단이 신체만족도가 높은 집단에 비해 더욱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4종류 의복 모두에서 신체만족도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더 불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신체에 만족할수록 의복에도 만족하며 자신의 의복이 몸에 잘 맞다고 한 이영운(198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치수적합을 포함한 의복만족도에서 신체만족도와 의복만족도가 정적인 관계를 나타냄을 보여준 연구결과(김순구, 1993)와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 4) 얼굴 및 인상만족도와 의복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도

외모만족도의 제2요인인 얼굴 및 인상만족도를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나누어 의복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표 8). 그 결과, 얼굴 및 인상만족도는 의복만족도의 세 요인인 사회성 및 외모적합성에 대한 만족도, 디자인의 다양성에 대한 만족도, 실용성 및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 모두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즉, 의복만족도의 세 요인에 대하여 얼굴 및 인상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얼굴 및 인상만족도가 낮은 집단에 비해 더 만족하고 있었다. 또한 외모만족도의 두 요인인 신체만족도, 얼굴 및 인상만족도는 의복의 일반적 만족도와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며, 신체만족도는 치수적합도에 대한 만족도와 정적인 관계를 보여준다.

<표 8> 얼굴 및 인상만족도와 의복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도와의 관계

		얼굴 및 인상만족도		
		낮은 집단	높은 집단	t
의복	사회성 및 외모적합성에 대한 만족도	17.33	18.94	-2.84**
만족도	디자인의 다양성에 대한 만족도	16.26	17.31	-2.20*
	실용성 및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	12.95	14.18	-3.79***

\* p<0.05, \*\* p<0.01, \*\*\* p<0.001 수준에서 유의함

#### 4. 외모만족도와 의복디자인 선호도와의 관계

##### 1) 신체만족도와 의복디자인 선호도와의 관계

노년기 여성들의 신체만족도와 의복디자인 선호도에 대하여 중요순서를 나타내면, <표 9>와 같다. 신체만족도에 따른 외출복 선호도를 살펴보면, 신체만족도가 낮은 집단의 경우 블라우스(스웨터)와 바지 24.4%, 투피스 정장 23.1%, 블라우스(스웨터)와 스커트 14.7%의 순이며, 신체만족도가 높은 집단의 경우 투피스정장 27.8%, 블라우스(스웨터)와 바지 16.7%, 블라우스(스웨터)와 스커트 14.4%의 순으로 신체만족도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블라우스(스웨터)와 바지를 더욱 선호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체만족도가 높은 집단에서 투피스정장 차림의 선호도가 높았는데, 이것은 생활만족도가 높은 집단에서 투피스정장 차림이 높은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신체만족도에 따른 계절별 선호의복색을 살펴보면, 봄의 선호의복색은 신체만족도가 낮은 집단이 분홍색 12.9%, 미색 10.1%, 노랑색 8.8%의 순이며, 신체만족도가 높은 집단의 경우 분홍색 11.9%, 베이지색 6.9%, 흰색 6.7%의 순으로 나타나 2, 3순위에 있어 신체만족도에 따른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름의 선호 의복색은 신체만족도가 낮은 집단이 흰색 27.3%, 파랑색 7.3%, 미색 6.7%, 하늘색 6.7%의 순이며, 높은 집단이 흰색 24.4%, 하늘색 7.5%, 미색 6.7%의 순으로 나타나 두 집단 모두 흰색이 압도적이며, 2, 3순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을의 선호 의복색은 신체만족도가 낮은 집단의 경우 밤색 21.3%, 자주색 8.9%, 베이지색 8.4%의 순이며, 높은 집단의 경우 밤색 13.1%, 베이지색 8.3%, 자주색 7.8%의 순으로 두 집단간 2, 3순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겨울의 경우는 두 집단 모두 검정색, 밤색,

<표 9> 신체만족도와 의복디자인 선호도와의 관계

		신 체 만 족 도	
		낮은 집단 (150*)	높은 집단 (360*)
선호하는 외출복의 종류	① 블라우스(스웨터)와 바지	110(24.4)	① 투피스정장 100(27.8)
	② 투피스 정장	104(23.1)	② 블라우스(스웨터)와 바지 60(16.7)
	③ 블라우스(스웨터)와 스커트	66(14.7)	③ 블라우스(스웨터)와 스커트 52(14.4)
선호하는 의복색	① 분홍색	58(12.9)	① 분홍색 43(11.9)
	② 비 색	45(10.1)	② 베이지색 25( 6.9)
	③ 노랑색	39( 8.8)	③ 흰 색 24( 6.7)
여름	① 흰 색	121(27.3)	① 흰 색 88(24.4)
	② 파랑색	33( 7.3)	② 하늘색 27( 7.5)
	③ 미색, 하늘색	30( 6.7)	③ 미 색 24( 6.7)
가을	① 밤 색	96(21.3)	① 밤 색 47(13.1)
	② 자주색	40( 8.9)	② 베이지색 30( 8.3)
	③ 베이지색	38( 8.4)	③ 자주색 28( 7.8)
겨울	① 검정색	147(32.7)	① 검정색 101(28.1)
	② 밤 색	52(11.6)	② 밤 색 39(10.8)
	③ 회 색	43( 9.6)	③ 회 색 27( 7.5)
선호하는 문양	① 문양없는 단색의 옷	144(32.0)	① 문양없는 단색의 옷 130(36.1)
	② 기하학적 문양(줄무늬, 체크무늬 등)	111(24.7)	② 기하학적 문양(줄무늬, 체크무늬 등) 80(22.2)
	③ 전통문양	43( 9.6)	③ 점문양 30( 8.3)
선호하는 옷감	① 세탁이 간편한 옷감	123(27.3)	① 세탁이 간편한 옷감 88(24.4)
	② 착용시 구김이 잘 가지 않는 옷감	60(13.3)	② 옷의 땀시가 잘 나는 옷감 55(15.3)
	③ 옷의 땀시가 잘 나는 옷감	57(12.7)	③ 착용시 구김이 잘 가지 않는 옷감 44(12.2)

\* 복수응답의 합계임.

회색의 순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신체만족도에 따른 선호하는 문양을 살펴보면, 신체만족도가 낮은 집단의 경우 문양없는 단색의 옷 32.0%, 기하학적 문양(줄무늬, 체크무늬 등) 24.7%, 전통문양 9.6%의 순이며, 높은 집단의 경우 문양없는 단색의 옷 36.1%, 기하학적 문양(줄무늬, 체크무늬 등) 22.2%, 점문양 8.3%의 순으로 3순위에서만 차이가 나타났다. 선호하는 옷감은 신체만족도가 낮은 집단의 경우 세탁이 간편한 옷감 27.3%, 착용시 구김이 잘 가지 않는 옷감 13.3%, 옷의 땀시가 잘 나는 옷감 12.7%의 순이며, 높은 집단의 경우 세탁이 간편한 옷감 24.4%, 옷의 땀시가 잘 나는 옷감 15.3%, 착용시 구김이 잘 가지 않는 옷감 12.2%의 순으로, 신체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옷의 맵시가 잘 나는 옷감을 더 중시한데 반해, 신체만족도가 낮은 집단은 착용시 구김이 잘 가지 않는 옷감을 더 선호함을 알 수 있다.

## 2) 얼굴 및 인상만족도와 의복디자인 선호도와의 관계

노년기 여성들의 얼굴 및 인상만족도에 따른 의복디자인 선호도 중요순서는 <표 10>과 같다. 선호의복 스타일을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투피스정장, 블라우스(스웨터)와 바지, 블라우스(스웨터)와 스커트의 순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선호비율에서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선호 의복색으로는, 봄의 경우 얼굴 및 인상만족도가 낮은 집단이 분홍색 12.5%, 미색 9.

<표 10> 얼굴 및 인상만족도와 의복디자인 선호도와의 관계

		얼굴 및 인상만족도	
		낮은 집단 (400*)	높은 집단 (396*)
선호하는	① 투피스 정장	101(25.3)	① 투피스정장 100(25.3)
외출복의	② 블라우스(스웨터)와 바지	90(22.5)	② 블라우스(스웨터)와 바지 79(19.9)
종류	③ 블라우스(스웨터)와 스커트	57(14.3)	③ 블라우스(스웨터)와 스커트 60(15.2)
선호하는	봄		
의복색	① 분 홍	50(12.5)	① 분 홍 49(12.4)
	② 미 색	38( 9.5)	② 미 색 32( 8.1)
	③ 베이지	36( 9.0)	③ 노 량 30( 7.6)
여름	① 흰 색	111(27.8)	① 흰 색 93(23.5)
	② 하늘색	29( 7.3)	② 미 색 33( 8.3)
	③ 파 랑	28( 7.0)	③ 하늘색 28( 7.1)
가을	① 밤 색	71(17.8)	① 밤 색 67(16.9)
	② 자 주	38( 9.5)	② 베이지 38( 9.6)
	③ 베이지	27( 6.8)	③ 자 주 30( 7.6)
겨울	① 검 정	130(32.5)	① 검 정 117(29.5)
	② 밤 색	49(12.3)	② 밤 색 39( 9.8)
	③ 회 색	40(10.0)	③ 회 색 29( 7.3)
선호하는	① 문양없는 단색의 옷	131(32.8)	① 문양없는 단색의 옷 143(36.1)
문양	② 기하학적 문양(줄무늬, 체크무늬 등)	97(24.3)	② 기하학적 문양(줄무늬, 체크무늬 등) 89(22.5)
	③ 전통문양	33( 8.3)	③ 전통문양 30( 7.6)
선호하는	① 세탁이 간편한 옷감	106(26.5)	① 세탁이 간편한 옷감 108(27.3)
옷감	② 착용시 구김이 잘 가지 않는 옷감	64(16.0)	② 옷의 맵시가 잘 나는 옷감 54(13.6)
	③ 옷의 맵시가 잘 나는 옷감	55(13.6)	③ 옷의 형태가 잘 변하지 않는 옷감 43(10.9)

\* 복수응답의 합계임.

5%, 베이지색 9.0%의 순이며, 높은 집단이 분홍색 12.4%, 미색 8.1%, 노랑색 7.6%의 순으로 3순위에서만 차이를 보였다. 여름의 선호 의복색의 경우 얼굴 및 인상만족도가 낮은 집단이 흰색 27.8%, 하늘색 7.3%, 파랑색 7.0%의 순이며, 높은 집단의 경우 흰색 23.5%, 미색 8.3%, 하늘색 7.1%의 순으로 두 집단 모두 흰색이 압도적이었으며, 2, 3순위에 있어 낮은 집단이 하늘색, 파랑색이며 높은 집단이 미색, 하늘색으로 차이를 보였다. 가을의 선호 의복색의 경우 얼굴 및 인상 만족도가 낮은 집단이 밤색 17.8%, 자주색 9.5%, 베이지색 6.8%의 순이며, 높은 집단의 경우도 밤색 16.9%, 베이지색 9.6%, 자주색 7.6% 순으로 두 집단간에 2, 3순위에 서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겨울의 선호 의복색은 두 집단 모두에서 검정색, 밤색, 회색의 순으로 나타났다.

얼굴 및 인상만족도에 따른 선호하는 분양 역시 문양없는 단색의 옷, 기하학적 문양(줄무늬, 체크무늬 등), 전통문양의 순으로 두 집단이 동일했으나, 선호비율에서만 차이를 보였다. 선호하는 옷감의 경우는, 얼굴 및 인상만족도가 낮은 집단이 세탁이 간편한 옷감 26.5%, 착용시 구김이 잘 가지 않는 옷감 16.0%, 옷의 땀시가 잘 나는 옷감 13.6%의 순이며, 높은 집단의 경우 세탁이 간편한 옷감 27.3%, 옷의 땀시가 잘 나는 옷감 13.6%, 옷의 형태가 잘 변하지 않는 옷감 10.9%의 순으로 나타나 두 집단 모두 세탁이 간편한 옷감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얼굴 및 인상만족도가 높은 집단의 경우 옷의 땀시가 잘 나는 옷감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신체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옷의 땀시가 잘 나는 옷감을 선호하는 결과와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 V. 요약 및 결론

이상에서와 같이 서울시내 거주 55세 이상의 노년가 여성을 대상으로

- ① 생활만족도와 의복만족도 간의 관계
- ② 생활만족도와 의복디자인 선호도 간의 관계
- ③ 외모만족도와 의복만족도 간의 관계
- ④ 외모만족도와 의복디자인 선호도 간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생활만족도와 의복만족도

생활만족도 문항의 요인분석결과 1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적합도를 제외한 의복의 일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사회적 및 외모적 합성에 대한 만족도, 디자인의 다양성에 대한 만족도, 실용성 및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의 3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들의 관계에서는 생활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의복만족도의 3개 요인에 대하여 더욱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 2. 생활만족도와 의복디자인 선호도와와의 관계

생활만족도가 낮은 집단의 경우 블라우스(스웨터)와 바지, 투피스정장, 블라우스(스웨터)와 스커트의 순이며, 높은 집단의 경우 투피스정장, 블라우스와 바지, 블라우스와 스커트의

순으로 생활만족도가 낮은 집단에서 블라우스와 바지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생활만족도가 높은 집단에서 정장스타일을 더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선호하는 의복색에서는 봄, 여름에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선호비율에서만 차이를 보였다. 가을에는 밤색, 자주색, 베이지색, 겨울에는 검정색, 밤색, 회색의 순으로 두 집단이 동일했다. 선호하는 문양은 문양없는 단색의 옷, 기하학적 문양을 공통적으로 선호했으며, 생활만족도가 높은 집단에서 점문양을 더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선호하는 옷감은 세탁이 간편한 옷감, 옷의 땀시가 잘 나는 옷감, 착용시 구김이 잘 가지 않는 옷감, 옷의 형태가 잘 변하지 않는 옷감 등으로 선호하는 문양과 마찬가지로 생활만족도에 따른 집단간에 선호비율에서만 차이를 보였다.

### 3. 외모만족도와 의복만족도

외모만족도 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신체만족도와 얼굴 및 인상만족도의 2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신체만족도와 의복만족도에서는 신체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의복의 일반적인 만족도의 3개 요인에 대하여 더욱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신체만족도와 시판기성복의 지수적합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잘 맞지 않는 부위로는 블라우스/스웨터와 자켓에서는 소매길이, 어깨부위, 블라우스(자켓)길이였으며, 바지에서는 바지길이,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스커트에서는 스커트길이, 허리둘레, 아랫배부위로 두 집단이 동일했으며 신체만족도가 낮은 집단이 더욱 불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얼굴 및 인상만족도와 의복만족도와의 관계에서는 의복만족도의 3개 요인에 대하여 얼굴 및 인상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더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 4. 외모만족도와 의복디자인 선호도와의 관계

신체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선호하는 외출복의 종류를 살펴보면, 블라우스(스웨터)와 바지, 투피스정장, 블라우스와 스커트였으며, 신체만족도에 따른 집단에 따라 선호비율에서 차이를 보였다. 신체만족도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블라우스와 바지를 더욱 선호했고, 신체만족도가 높은 집단에서 투피스정장 차림의 선호도가 높았는데, 이것은 생활만족도가 높은 집단에서 투피스정장 차림이 높은 것과 일치한다. 선호하는 의복색으로는 봄에는 두 집단이 모두 분홍색을, 여름에는 흰색을 가장 선호했으나 2, 3위는 차이를 보였다. 가을에는 밤색, 자주색, 베이지색로 색상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선호비율에서만 차이를 보였으며, 겨울에는 검정색, 밤색, 회색의 순으로 두 집단에서 동일한 순서를 나타내고 있다. 선호하는 문양은 문양없는 단색의 옷, 기하학적 문양이 두 집단에서 각각 1, 2위를 차지했고, 신체만족도가 높은 집단에서 점 문양이 3위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옷감으로는 세탁이 간편한 옷감이 두 집단 모두에서 가장 선호되었으며, 신체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옷의 땀시가 잘 나는 옷감을, 반면 신체만족도가 낮은 집단은 착용시 구김이 잘 가지 않는 옷감을 더 선호했다.

얼굴 및 인상만족도와 의복디자인 선호도와의 관계에서 선호하는 외출복의 종류를 살펴보면, 블라우스(스웨터)와 바지, 투피스정장, 블라우스와 스커트다. 선호하는 의복색에서는 봄에는 분홍색, 미색, 베이지색, 노랑색, 여름에는 흰색, 하늘색, 파랑색, 미색, 가을에는 밤색, 자주색, 베이지색으로 색상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선호비율에서만 차이를 보였으며, 겨울에는 검정, 밤색, 회색의 순으로 두 집단이 동일했으나, 얼굴 및 인상만족도가 낮은 집단의 선호비율이 더욱 높았다. 선호하는 문양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선호하는 옷



감은 얼굴 및 인상만족도가 높은 집단의 경우가 옷의 맵시가 잘 나는 옷감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신체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옷의 맵시가 잘 나는 옷감을 선호하는 결과와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활만족도와 외모만족도가 높을수록 의복만족도 및 치수적합도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의복디자인 선호도는 두 집단간 뚜렷한 차이가 없는데, 생활 및 외모만족도가 높은 집단에서 투피스성장 및 옷의 맵시가 잘 나는 옷감의 선호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노년기 의복의 관심도와 중요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생활만족도와 외모만족도 및 의복만족도, 의복선호도와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따라서 노년기 여성의복 연구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을 환기시키고, 보다 광범위한 노년기 의복 연구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본다. 앞으로 노인의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특성과 의복을 여러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연구대상을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시키고, 타문화권과의 비교연구도 요구된다고 하겠다.

## 인용문헌

1. 강혜원, 이선경. 노년층 남녀의 사회심리학적 측면의 의복 연구. 생활과학논집, 연세대학교, 5-16, 1990.
2. 구자명. 사춘기 남녀중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성취동기 및 사회성에 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3. 김미영. 여자 중·고등학생의 교복자율화와 외모만족도에 관한 연구, 상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4. 김수연. 도시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5. 김순구. 성인 및 노인집단의 인구통계적·심리적 변인과 의복행동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6. 김영애. 노년기 여성의 의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7. 박미애. 노인여성의 신체적 자아 및 생활만족도와 의복태도와의 관계 -서울시내 노인학교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8. 박재옥. 노인외복 연구의 업적에 관한 조사연구. 과학논집, 10. 개명대학교 생활과학 연구소. 37-49, 1984.
9. 박준경. 우리나라 노년층의 의복색 기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10. 박충선. 거동불편 노인의 가족관계와 의·식생활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3), 71-83, 1991.
11. 시미야. 의복의 무늬기호도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연구, 3, 한양대 생활과학연구소, 207-226, 1985.
12. 유경숙. 노년층 여성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13. 유송옥. 복식의장학. 수학사, 1975.
14. 윤진. 노인 생활만족도 척도제작연구, 학술발표논문 초록, 한국심리학회, 1982.
15. 이미강, 이인자. 성인여성의 의복디자인 선호도와 자아개념과의 관련성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9(1), 9-16, 1985.
16. 이영윤.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행동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17. 임치경. 노년기 여성의 사회적 불안감과 의복행동과의 관계-서울시내 노인학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18. 정희용, 임숙자. 노년기 여성의 자아지각과 의복관심과의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2(3), 333-342, 1988.
19. 조은주. 노년기 여성의 의복스타일 선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20. Baum, S. & Boxley, R. Age identification in the elderly. *The Gerontologist*, 23, 532-537, 1983.
21. Hogge, V. E. and Baer, M. M. Elderly women's clothing: Acquisition, fit, and alterations of ready-to-wear garment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0, 333-341, 1986.
22. Hwang, J. *Body image, self-esteem, and clothing of men and women aged 55 years and old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1993.
23. Labat, K. L. *Consumer satisfaction/dissatisfaction with the fit of ready-to-wear clothing*. Unpublishe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Minneapolis, 1988.
24. Labat, K. L. & DeLong M. Body cathexis and satisfaction with fit of appare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8(2), 43-48, 1990.
25. Mclean, F. P. *The Process of Ageing Related to Body Cathexis and the Clothing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tah State University, 1978.
26. Ryan, M. S.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66.
27. Secourd, R. & Jourard, S. The appraisal of body cathexi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7, 343-347, 1953.
28. Shannon, L. E. *Consumer satisfaction with cotton fabrics in relation to selected physical characteristic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Florida State University, 1961.
29. Shim, S., Kotsiopoulos, A. & Knoll, D. Body cathexis, clothing attitude, and their relations to clothing and shopping behavior among male consumer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9(3), 35-44, 1991.
30. Tate, M. T. and Glisson, O. *Family clothing*.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67.
31. 許甲暹. 韓國老年期女性의 衣生活實態調査研究. 衣生活研究, 20(4), 48-53, 1993.